

‘20대면 누구나’... LG, 청년 AI전문가 매년 4000명 양성

‘LG 에이머스’ 프로젝트 시작
22일까지 20대 누구나 참여가능
지역 관계없이 2개월 온라인 교육
실무경험 ‘AI해커톤’ 참가도 가능

LG가 인공지능(AI) 전문가 4000명
양성 작전을 시작한다.

LG는 ‘LG 에이머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
수를 받는다.

LG에이머스는 AI전문가 교육 프로
그램이다. 연간 4000명 이상 청년 AI 전
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가 수준의 AI 이론 교육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에이머스는 AI와 조준을 합성한 ‘에
임’에 사람을 뜻하는 er을 붙인 단어다.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AI 시대



LG 트윈타워 전경.

/뉴시스

를 이끌어 가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학
력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AI 기초 지식
과 코딩 역량을 갖춘 만 19에서 29세 청
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 선호 의견을 따라 온라
인 교육으로 구성했다. 지역에 관계없
이 2개월간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
다.

참가자는 7월부터 한달간 AI 전문가
6인의 핵심 이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배석주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 ▲강제원 이화여대 전기전자공학
과 교수 ▲이원종 서울대 지능정보융합
학과 교수 ▲문태섭 서울대 전기/전자
공학부교수 ▲이상학 서울대 데이터사
이언스 대학원 교수 ▲김경석 LG이노
텍 연구위원 등이 강의를 맡았다.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LG AI 해
커톤’ 참가도 가능하다. 해커톤은 해킹
(Hacking)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주어
진 문제를 제한된 기간 안에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이번 ‘LG AI 해커톤’의 주제는 ‘자
율주행 레이더(Radar)센서’와 관련해
진행된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가자
에게는 LG 계열사 면접 기회가 주어
진다.

LG는 ‘LG 에이머스’가 AI 분야 인

력 부족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취업 경
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김이경 (주)LG 인사/육성팀장은 “AI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AI 인재 부족
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는 단비
같은 역할을 하는 대표 AI 교육 프로그
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는 고용노동부가 기업들과
함께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에
도 참여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AI 교
육 기관인 ‘LG디스커버리랩’과 LG 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교육 프로
그램인 ‘LG AI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미래를 이끌어 갈 AI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금융지원 정상화시 부실기업 증가 가능성”

한은 보고서

국내 채무조정 제도 우수하지만
도산실무 한시도입 등 보완 필요

우리나라가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
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
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
트 ‘기업 채무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글
로벌 논의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지원 조치가 정상화
될 경우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재화될 가
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
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도산제도(특
히 채무조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도 1997년 아시아 금융위
기, 2002년 신용카드 사태 때와 달리 아
직은 기업의 파산이 증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충격이
큰 취약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현

실화하면 부실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 채무조정이란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출자전환 등과 같은 채무
사항 변경을 의미한다. 회생가치가 높
은 기업(준속가치)·청산가치)을 해체하
기보다 가능한 준속시킴으로써 경제·사
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
다. 채무조정 방식은 크게 회생절차, 혼
합형 워크아웃, 강화된 워크아웃, 자율
협약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FSB), 세계
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
F) 등은 코로나19 지원조치 정상화 과
정에서 과다부채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
모 도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채무조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권고했
다. 신규 지분투자 유치 등 자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법원의 채무조
정 등 다양한 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위
한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채권단의 출
자 전환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제안한
것.

우리나라는 몇 차례 금융위기를 계기

로 아시아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다양한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법률에 기초한 강화된
워크아웃(enhanced workout), 회생
전문법원 설치·운영, 중소기업 회생절
차 간소화 제도 등이 주요 특징이다. 코
로나19 이후에는 공적 펀드를 통한 기
업 채무조정 촉진,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노력 지속, 소규모 중소기업
을 위한 선제적·자율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 등과 같이 기업 채무조정제도를
꾸준히 개선됐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는 법원 외 채무조정 등 기업 채무조정
제도가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편으
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주요국의 관련
제도 개선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자
본시장을 활용한 기업 채무조정 활성화
▲도산실무가 제도의 한시적 도입 ▲중
소기업 맞춤형 법원의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한
장치 강화 등과 같은 보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내달 가스요금 또 오른다

내달 가스요금이 오르며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될 예정이다. 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물 뒤에서 시민이 가스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코오롱, 첨단 신소재 적용 ‘아토맥스’ WRC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인증

탄성·경도, 내부식 등 획기적 개선
타 브랜드 대비 최대 18미터 이상

코오롱 신소재가 골프공 비거리 기록
을 깼다.

코오롱은 14일 자체 개발한 신소재
아토메탈을 적용한 골프공 아토맥스로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의 세계
최장 비거리를 인증받았다.

아토메탈은 금속원자 구조를 불규칙
하게 만들어 탄성과 경도, 내부식과 내
마모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
다. 1959년 처음 발견했지만 양산이 어
려워 생산 업체가 손에 꼽는다. 아토메
탈테크코리아는 지난해부터 양산 체제
를 갖췄다.

아토맥스는 아토메탈 분말을 적용해
글로벌 인증기관에서 처음으로 최장비
거리 골프공임을 확인했다. 타 브랜드
10개사 중 골프공 대비 최대 18미터 이
상 더 멀리 날아갔음을 인증했다.

미 WRC 심사위원 대표 데이비 니콜
헤슈는 “아토맥스의 놀랍고 성공적인
세계 신기록을 인증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이를 통해 골프용품 산업
새로운 성증 기준을 제시할 뿐 아니라,
자동차와 에너지 등 다양한 적용분야에
서 소재 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코오롱만의 제품을 만든다는 경영방침
‘원앤온리’를 다시 한번 구현한 결과라
고 평가했다.

코오롱은 이날 마곡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에서 ‘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공
식 인증식을 열었다. 인증식에는 코오
롱인더스트리 장희구 사장과 한국기록
원 김덕은 원장, 미 WRC 심사위원 대
표 데이비니 헤슈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이
우열 명예 회장도 참석해 축하와 격려
를 전했다.

이우열 명예회장은 “코오롱의 핵심
가치인 원앤온리(One&Only) 정신으
로 첫 시도한 결과물이 세계 최고로 인
정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서, “이번 신기록에 머물지 말고 우리
기록을 우리가 계속 깨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도전해 세계
최고 신기록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
부했다.

/김재용기자

한화, 美 오버에어에 1500억 투자... 내년 UAM 비행 목표

한화시스템·에어로스페이스
1479억 시리즈B 투자에 참여

한화시스템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와 함께 내년 3분기 도심항공교통(UA
M) 무인 시제기 비행을 목표로 공동투
자에 나선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소재 U
AM 기술 선도기업 오버에어가 진행한
총 1억1500만달러(약 1479억원) 규모의
시리즈B(스타트업의 두번째 단계 자금
조달) 투자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오버에어가 발행한 컨버터블 노
트(오픈형 전환사채) 취득을 이날 공식

했다.

한화시스템은 2019년부터 전략적 투
자자로 참여, 오버에어 시리즈A에 2500
만달러(당시 약 298억원)를 투자해 에어
택시 기체 ‘버터플라이’의 공동개발사
로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시리
즈B에 선행해 3000만달러(당시 약 346
억5000만원) 투자를 집행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은 이번 시리즈B 투자에
5000만달러(한화 약 643억원)를 진행하
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참여
해 6500만달러(한화 약 836억원)를 투
자한다.

국내 최초로 UAM 시장에 뛰어든 한
화시스템은 고도화된 항공전자 및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버에어의 세계적
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역량을 접목해 기체개발·버티포트·교
통관리 서비스 등 국내외 UAM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UAM 솔루션 프로바
이더’로 발돋움한다는 전략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0여년
간 우주항공엔진 전문기업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토대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량을 집
중하고 있다. 특히 누리호·KF-21 등 다
양한 우주항공 엔진과 구동 분야의 풍부
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UAM 파워트레
인(동력전달장치)’ 사업을 이끌며 성장
해 간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